

KOSDAQ |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씨어스테크놀로지 (458870)

thynC와 mobiCARE, 투트랙 질주로 고성장 궤도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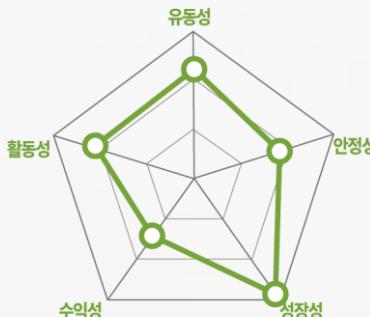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일반병동 모니터링 시장을 개척한 'thynC'와 상급종합병원 89% 이상에 도입된 'mobiCARE'를 주력으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차별화된 성장 구조를 확보
- 예상 연결 기준 매출액 313억 원(+286% YoY), 영업이익 51억 원(흑자전환)으로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 달성을 전망
- 건강보험 수가 인정으로 도입한 병원의 ROI를 높여 빠른 시장 침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해외 진출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성장 모멘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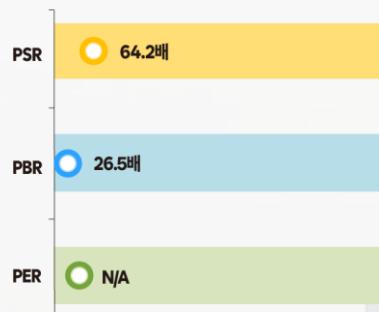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씨어스테크놀로지 (458870)

KOSDAQ

Analyst 김승준, PharmD edwardsj@kirs.or.kr

RA 박규연 park.gyuyeon@kirs.or.kr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스마트병동 & 심전도 모니터링 선도 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

씨어스테크놀로지는 2009년 설립된 원격진료 및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 전문기업으로, 2024년 6월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 상장. 주요 사업 부문은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 솔루션 'mobiCARE' &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thynC'로 구분. 'mobiCARE'는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89% 이상에 도입되어 사실상 표준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건강검진센터를 중심으로 검사 건수 확산세가 뚜렷함. 'thynC'는 일반병동까지 타깃으로 한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기존 ICU 중심 모니터링 기기의 한계를 넘어선 '스마트병동 인프라'로 평가됨.

블루오션 개척에서 글로벌 확장까지

동사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차별화된 투트랙 성장 구조를 확보. 일반병동 모니터링 시장을 개척한 'thynC'는 긴호 인력 부족과 환자 안전 수요에 부합하며 빠르게 확산 중이며, 대웅제약과의 독점 유통 계약을 기반으로 전국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음. 또한 'mobiCARE'는 상급종합병원의 89% 이상에 도입되며 사실상 국내 표준 솔루션으로 자리매김. KMI,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대형 검진기관과 계약을 통해 약 400만 명 규모 신규 수검자 시장을 확보했으며, 해외에서는 미국 FDA 승인과 현지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하며 글로벌 확장 모멘텀을 준비 중. 특히 보험수가 적용을 통해 병원 ROI를 높임으로써 빠른 채택을 이끌어낸 점은 동사의 중요한 경쟁력임.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 구조적 성장 궤도 진입

2025년 예상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313억 원(+286% YoY), 영업이익 51억 원(흑자전환), 당기순이익 52억 원(흑자전환)으로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가 기대. 이미 상반기에 매출 120억 원, 영업이익 9억 원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으며, 하반기에는 'thynC' 신규 병상 설치 및 'mobiCARE' 건강검진 수요 집중 효과로 성장 모멘텀이 가속화될 전망.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2025년 예상 PBR 18.0배, PSR 15.3배는 단순 수치상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으나, ROE 21.8% 수준의 높은 자본 효율성과 국내 AI 헬스케어 기업 중 가장 빠른 수익화 이력은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정당화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14	12	19	81	313
YoY(%)	116.8	-16.8	63.5	329.7	286.4
영업이익(억원)	-44	-80	-98	-87	51
OP 마진(%)	-316.6	-693.0	-520.1	-107.2	16.3
지배주주순이익(억원)	-44	-80	-99	-89	52
EPS(원)	-476	-741	-905	-752	417
YoY(%)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흑전
PER(배)	N/A	N/A	N/A	N/A	91.2
PSR(배)	0.0	0.0	0.0	15.3	15.3
EV/EBITDA(배)	N/A	N/A	N/A	N/A	73.6
PBR(배)	0.0	0.0	0.0	6.2	18.0
ROE(%)	-37.6	-43.4	-75.9	-60.1	21.8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8/21)	38,000원
52주 최고가	38,000원
52주 최저가	8,580원
KOSDAQ (8/22)	777.24p
자본금	63억원
시가총액	4,785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3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4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40억원
외국인지분율	66.4%
주요주주	이영신 외 4 인 원베스트벤처투자 외 4 인
	28.47%
	7.81%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7.3	156.9	240.8
상대주가	24.0	156.1	242.0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총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기업 개요

원격진료 및 의료용 웨어러블

전문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원격진료 인증을 확보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심전도 분석 솔루션

‘mobiCARE’와 입원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thynC’를 주력

사업으로 운영하며, 국내 병원과

검진센터를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기술집약형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는 2009년 설립된 원격진료 솔루션 및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 전문기업으로, 2024년 6월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설립 초기부터 무선 웨어러블 바이오센서와 의료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환자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해왔으며, 국내 최초로 원격진료 솔루션에 대해 식약처(2010년) 및 미국 FDA(2012년)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 기반을 조기에 확립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임직원은 110명이며, 이 중 약 65%가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주력 사업은 크게 진단지원과 환자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진단지원 부문에서는 2020년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 솔루션 ‘mobiCARE’를 출시하여 국내 최초로 구독형 심전도 분석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환자가 2~9일간 기기를 부착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AI 분석과 전문의 검수를 거쳐 보고서 형태로 제공된다. 이는 기존 대비 저렴한 비용과 높은 환자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해 부정맥 조기진단을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2023년부터는 대학병원 및 전문검진센터와 협력해 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2024년 말 기준 국내 950여 개 의료기관에서 도입되어 누적 검사 건수는 20만 건을 돌파했다. 현재는 순환기 질환 외에도 신경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추진하며, 플랫폼 기반 진단지원 서비스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다.

환자모니터링 부문에서는 2024년 ‘thynC’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는 심전도, 체온, 산소포화도 등 주요 바이탈 신호를 무선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실시간 측정 및 분석하고, 중앙감시장치를 통해 병동 내 환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중환자실 ICU(Intensive Care Unit) 중심의 모니터링 기기와 달리, 일반병동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환자 이동 시에도 데이터 유실이 최소화되는 무선 네트워크 기반 구조를 갖췄으며, 인공지능 기반 알람 기능을 통해 의료진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주요 대학병원 임상연구를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입증한 이후 일반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등으로 상용화가 확산되고 있다. ‘thynC’는 구축형과 구독형 모델을 병행해 병원별 상황에 맞는 도입 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응급환자 모니터링, 퇴원 후 재택 모니터링까지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동사는 의료기기 및 소재 분야의 자체 제조 역량을 보유한 점도 강점이다. 웨어러블 심전계, 및 ‘thynC’를 구성하는 체온계, 펌스옥시미터, 심전계 등 다양한 제품을 자체 생산한다. 이를 통해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공급 및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연간 헬터심전계(mobiCARE™-MC200M) 66,000대, 그 외 ‘thynC’를 구성하는 피부적외선체온계 118,800대, 펌스옥시미터 24,000대, Gateway 36,000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가동률은 헬터심전계 43.9%, 피부적외선체온계 0.29%, 펌스옥시미터 4.8%, Gateway 8.3% 수준이다.

동사의 수출 비중은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2.5%로 아직 제한적이지만, 수출 매출의 대부분(97.9%)은 ‘mobiCARE’가 차지한다. 현재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에 ‘mobiCARE’ 분석센터를 설립하며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

고 있다. 반면 'thynC'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이 발달한 국가에서만 상용화가 가능해 현재는 국내 병원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매출 구조는 대부분 국내 발생이지만, 향후 해외 파트너십과 제도 개선을 통한 수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 측면에서 'thynC' 관련 임상연구 12건, 'mobiCARE' 순환기내과 임상연구 17건, 진단분야 확장 임상연구 25건을 수행하며 다양한 임상 근거를 축적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SCI 채택 논문 14건, SCI Peer-Review 논문 26건, 학술대회 발표 논문 36건을 발표했으며, '환자의 생체신호 모니터링 방법 및 시스템'을 비롯한 총 123건의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업 연혁

준비기(2009~2012)	기술성장기(2013~2020)	외형성장기(2021~2022)	도약기(2023~)
<p>2009.08 (주)씨어스테크놀로지 설립</p> <p>2010.11 의료기기 품질관리 시스템(GMP) 인증 획득</p> <p>2010.11 국내 최초 원격진료 솔루션 식약처 인증</p> <p>2011.10 원격진료 솔루션 CE 인증</p> <p>2011.10 의료기기 품질 표준 ISO13485 인증 획득</p> <p>2011.12 국내 최초 HDP 의료용 무선통신 솔루션 인증</p> <p>2012.02 원격진료 솔루션 FDA 인증</p> <p>2012.11 원격의료 단말기 미국 FDA 및 Special 510K 인증 획득</p>	<p>2016.09 2세대 원격의료 단말기 유럽 의료기기 인증(CE MDD) 획득</p> <p>2017.10 미국 홀랄라헬스 원격진료 솔루션 공급</p> <p>2018.03 Cardiac 비이오 패치 식약처 인증</p> <p>2019.06 시드투자 유치</p> <p>2019.08 웨어러블 심전계 식약처 인증</p> <p>2020.01 E6545 요양급여 획득</p> <p>2020.03 mobiCARE+Cardio 유럽 CE 인증 획득</p> <p>2020.03 웨어러블 심전계 CE 인증</p> <p>2020.03 시리즈 A 투자 유치</p> <p>2020.07 웨어러블 AI 심전도 분석 서비스 mobiCARE™ 출시</p> <p>2020.11 서울대학교 성심병원과 mobiCARE-MC100 임상연구에 대한 연구 계약 체결</p> <p>2020.11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의료분야 사업화 및 R&D 컨소시엄 추진과 협업에 대한 업무 협약 체결</p> <p>2020.12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비대면 응급 환자 신속 대응 및 스마트 이동 시스템' 개발 협정</p> <p>2020.12 대웅제약과 mobiCARE-MC100 국내 유통 및 판매계약 체결</p> <p>2020.12 시리즈 B 투자 유치</p>	<p>2021.05 웨어러블 체온계(MT100D) 유럽 CE 인증</p> <p>2021.07 웨어러블 체온계(MT100D) 의료기기 제조 인증 획득</p> <p>2021.07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비대면 의료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체결</p> <p>2021.07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카이오스크 공급 및 설치 계약 체결</p> <p>2021.07 웨어러블 체온계 CE, 식약처 인증</p> <p>2021.08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스마트병원 RTLS 시스템, 응급실 관리 시스템 공급 및 설치 계약 체결</p> <p>2021.10 한림대학교 충전 성심병원과 카이오스크 공급 및 설치 계약 체결</p> <p>2021.12 Series C, 기관투자 유치, 유상증자(183억 원)</p> <p>2022.02 E6556/E6557 요양급여 획득</p> <p>2022.05 Series C, 기관투자 유치, 유상증자(70억 원)</p> <p>2022.05 피부저울 체온계(MT110H) 의료기기 제조 인증 획득</p> <p>2022.05 경기도 평택시 소재 GMP 인증 웨어러블 의료기기 전용 생산공장 축소 위함 공장 부지 및 건물 취득</p> <p>2022.05 환자중장갑사장치 식약처 인증</p> <p>2022.05 웨어러블 의료기기 전용 공장 및 점착소재연구소 설립</p> <p>2022.06 (주)씨어스테크놀로지 점착소재연구소 설립</p> <p>2022.12 E6544 요양급여 획득</p>	<p>2023.01 건강검진용 부정맥 AI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p> <p>2023.06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술성 평가 통과</p> <p>2023.08 글로벌 mobiCARE™ 서비스 개시</p> <p>2023.09 웨어러블 필스옥시미터 식약처 인증</p> <p>2023.11 한국원격의료학회, 포함시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뇌졸중 환자 진단/치료/관리 체계 구축 실증' 추진 업무협약 체결</p> <p>2023.12 (주)씨어스테크놀로지 창상피복제 공급사업 협약</p> <p>2023.12 E7230 요양급여 획득</p> <p>2024.01 대웅제약, KM한국의학연구소, 메디레이아이와 AI/심전도 공급계약 체결</p> <p>2024.02 원외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thynC™ 출시</p> <p>2024.03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p> <p>2024.06 코스닥 상장</p> <p>2024.12 EX871 요양급여 획득</p> <p>2025.07 thynC: 악성 부정맥 예측 혁신의료기기 선정</p>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주요 사업

1. thynC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2024년 매출 비중: 52%)

'thynC'는 일반병동 환자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확장한 국내 최초

스마트병동 플랫폼으로, 환자

안전성과 의료진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며 빠르게 매출 성장과 시장

확산을 이끄는 중

'thynC'는 환자에게 심전도 패치,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 패치, 반지형 혈압계 등 다양한 웨어러블 바이오센서를 부착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무선으로 중앙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전송한다. AI 알고리즘은 전송된 심박동, 산소포화도, 체온, 혈압 등 주요 바이탈 사인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며, 의료진은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백 병상 규모의 병동에서도 환자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응급 부정맥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솔루션의 설계는 의료사물인터넷 IoMT(Internet of Medical Things)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

고 있으며, 전자의무기록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과도 연동 가능하다.

‘thynC’는 환자 부착형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 수집 및 전송 게이트웨이, 중앙 서버 및 의료진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환자는 병동 내 어디서든 생활 제약 없이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nurses station이나 mobile dashboard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별 상태를 확인한다. 동사는 ‘thynC’의 신호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 글로벌 벤더(Philips, 네덜란드)의 중앙 모니터링 장비(Telemetry)와 임상 비교시험을 수행하여 동등우위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일반병동 모니터링 기기 중 기존 중환자실용 ‘Telemetry’와 동등한 성능을 검증받았다.

2024년 2월 상용 출시된 ‘thynC’는 2025년 6월 기준 상반기만에 국내 약 3,000개 병상에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체 입원병상(70만개)의 약 0.4% 수준에 불과하지만, 일반병동 모니터링이라는 블루오션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초기에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채택되었으나, 최근에는 간호인력 부족을 겪는 지역 거점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대웅제약과의 총판 계약을 기반으로 영업망이 강화되면서 도입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적 성과 측면에서도 ‘thynC’는 동사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2025년 상반기 ‘thynC’ 매출은 98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고성장하며 전체 매출의 82%를 차지했다. 이 같은 실적 확대는 동사로 하여금 창사 이래 최초의 반기 흑자 달성을 가능케 했으며, 향후 ‘thynC’의 모니터링 항목 확대(조기경보지수, 발열, 낙상 감지), 3rd Party 모니터링 장치 연동 확대(수액 모니터링, 연속혈당측정, 심박출 모니터링 등), AI 기능 고도화(부정맥, 심정지, 패혈증 예측) 등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7월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획득한 악성 부정맥 예측 AI는 기술 신뢰성을 뒷받침하며,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동사는 ‘thynC’를 표준 스마트병동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진단부터 모니터링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thynC서비스 소개



환자, 의료진 편의성과 임상 효용성 확보로 광범위한 입원병동 수요 확보

항목	Before (기존 방식)	After (thynC™)
모니터링 방법	병실 내 고정 장비로 수동 감시	실시간 AI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환자 주변 장비 개별 운영	IoMT 연동 장비로 통합 수집
알림 방식	이상 발생 시 수동 확인/지연된 경보	이상 경후 자동 탐지 및 의료진 즉시 알림
공간 제약	침대 주변 장비 밀집, 환자활동 제한	무선 기반 데이터 수집/환자 이동 자유로움
운영 효율	의료진 수동 기록 및 확인	대시보드 기반 통합 관리, 업무 효율성 향상
환자 경험	침대에 고정된 상태에서 지속 감시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입원 환경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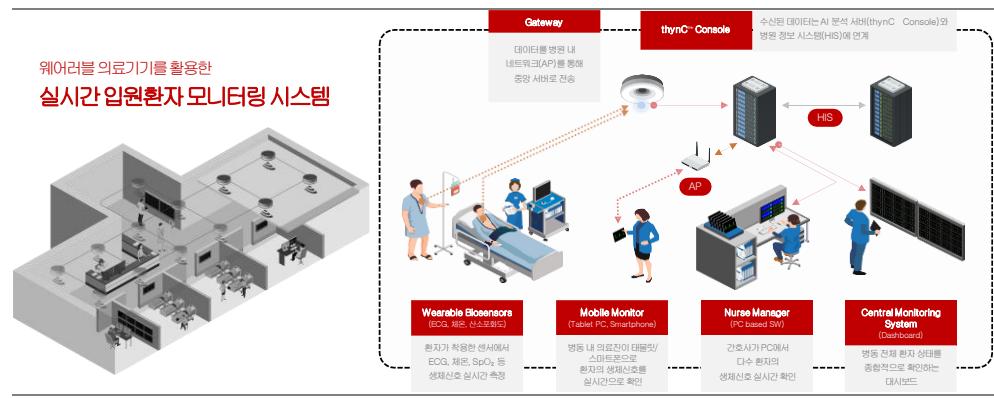
thynC™?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한 환자의 생체 신호를 의료진에게 제공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입원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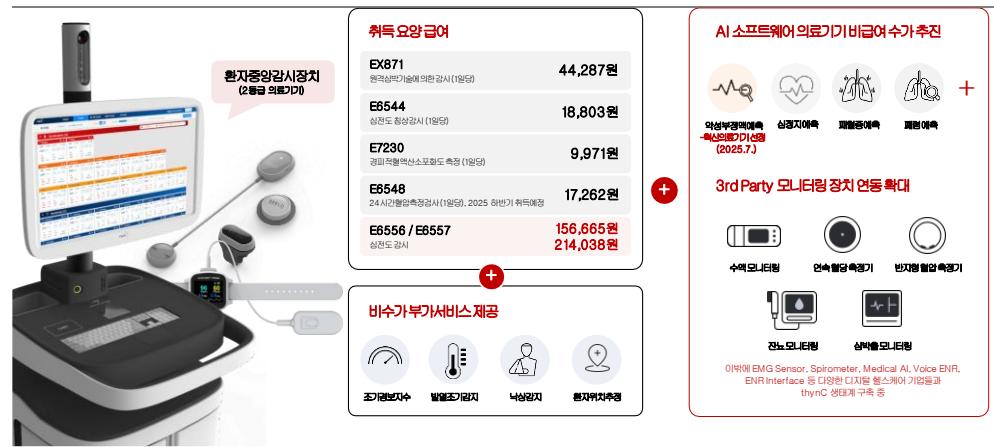
의료 AI	실시간 생체신호 분석 및 중증화 예측, 이상징후 감지 및 알림
웨어러블 의료기기	생체신호 모니터링 바이오센서 (심전도, 심박,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혈당)
온프레마스 서버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AI 탑재 서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간호인력과 의료진을 위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thynC 시스템 구성: 실시간 AI로 완성하는 스마트 병동 인프라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thynC 모니터링 플랫폼 고도화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mobiCARE (심전도 검사 솔루션, 2024년 매출 비중: 45%)

‘mobiCARE’는 환자 편의성과 정확한 진단을 결합한 웨어러블 심전도 솔루션으로, 국내 심전도 검사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글로벌 진출을 통해 씨어스테크놀로지의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 중

이 시스템은 웨어러블 심전계, 데이터 전송 크래들, 분석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가 일상생활 중에도 최대 9일까지 연속 측정이 가능하다. 수집된 데이터는 자동 업로드 후 AI가 분석해 정밀 보고서를 제공하고, 필요 시 전문의 검토까지 더해져 신뢰도를 높인다. 복잡한 전극 부착 과정 없이 간편하게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환자 경험을 개선하고, 의료진의 임상 의사결정 효율성도 제고한다.

현재 ‘mobiCARE’는 국내 약 950여개 의료기관, 60여개 건강검진센터에 도입되어 있으며, 2025년 6월 기준 누적 진

단 건수는 20만 건, 건강검진 스크리닝 건수는 30만 건에 달한다. 이는 국내 부정맥 검사 시장의 약 2% 수준으로 침투율은 아직 낮으나, 대형 검진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장기 심전도 검사에 대한 보험 수가 (E6556, E6557) 신설 이후 장기 측정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하였으며, KMI(Korea Medical Institute)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주요 기관이 도입을 확대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025년 상반기 'mobiCARE' 매출은 22억 원으로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며 회사의 두 번째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사는 'mobiCARE'를 단순 부정맥 검사 도구를 넘어 심혈관 질환 통합 진단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 심방세동, 심근경색, 심부전 등 고위험 질환의 조기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채널 심전계와 원격 모니터링 기능 개발로 임상 적용 범위를 확대 중이다. 순환기내과 외에도 신경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다양한 진료과로 활용을 확장하고 있으며, 수면장애, 전해질 이상, 배란일 예측 등 신규 모델을 연구하여 비급여 서비스화를 통한 병원 부가수익 창출도 추진하고 있다.

시장 확장 전략은 건강검진센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락인(lock-in) 효과 강화, B2C 진단 서비스 및 원격 모니터링 진출, 반려동물 심장질환 진단과 같은 신규 시장 탐색까지 포함한다. 글로벌 측면에서는 몽골, 홍콩,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에서 이미 상용화를 완료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 병원에서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승인 절차를 진행 중으로 2025년 하반기 승인 완료 후 2026년 1Q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후 수출로 인한 매출 성장세도 기대된다.

이처럼 동사의 'mobiCARE'는 환자 중심의 혁신적 심전도 진단 솔루션으로 자리잡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동사의 핵심 성장 동력인 주요 사업이다.

mobiCARE 서비스 소개



환자 편의성, 구독기반 분석서비스로 심전도 검사 서비스의 미충족 수요 해결

항목	Before (기존 방식)	After (mobiCARE)
도입 금액	고가	저가
검사 환경	유선 케이블 다수 부착 기기(500g) 휴대	일상 속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패치
사용자 편의성	불편한 부착, 제한된 활동	가벼운 패치, 자유로운 활동 가능
검사 시간	24시간 이내	최대 9일
데이터 처리	수동 확인·분석	자동 업로드 · AI 분석 기반 정밀 판독

mobiCARE™란?

- 웨어러블 기기와 AI를 활용한 부정맥 진단 지원 서비스
- 구성: 웨어러블 심전계+ 크래들(데이터 업로더) + 소프트웨어

신뢰성: 결증된 기술

-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
- 다양한 임상 연구, 최대 9일 연속 모니터링

편의성: 유연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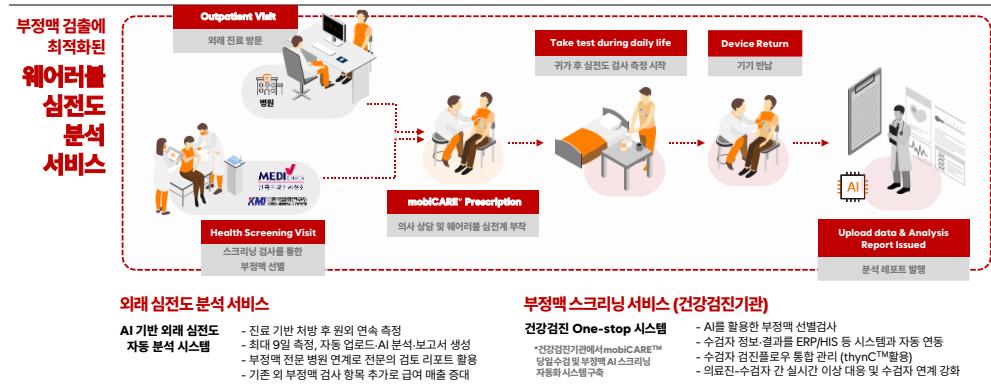
- 다양한 제품·작용 옵션 (일회용 및 다회용)
- 택배 회수 서비스 등 사용자 중심 관리서비스

경济성: 부담 없는 도입

- 자체 제조공장 보유
- 원가 절감 및 품질 관리
- 안정적 공급 및 관리 체계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mobiCARE 시스템 구성: Wearable AI 기반 심전도 진단의 새로운 Paradigm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mobiCARE 진단 플랫폼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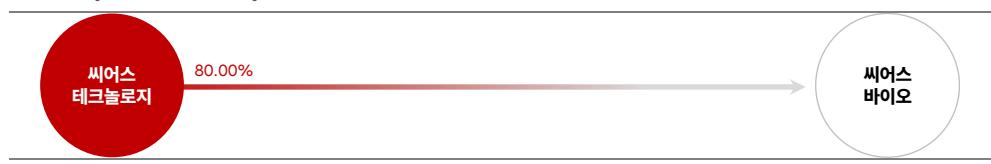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종속 기업 및 주주구성

1. 종속 회사

당사는 2025년 2분기 중 현금 4억 원을 출자하여 지분율 80%를 보유하는 자회사 (주)씨어스바이오를 설립하였다. 동사는 자회사를 통해 향후 의약품 유통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기존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와는 차별화된 신규 사업 진출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 모델 및 실행 전략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본격적인 사업 전개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구체적 방향성과 사업 구조는 별도 공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종속 회사 (2025.06.30 기준)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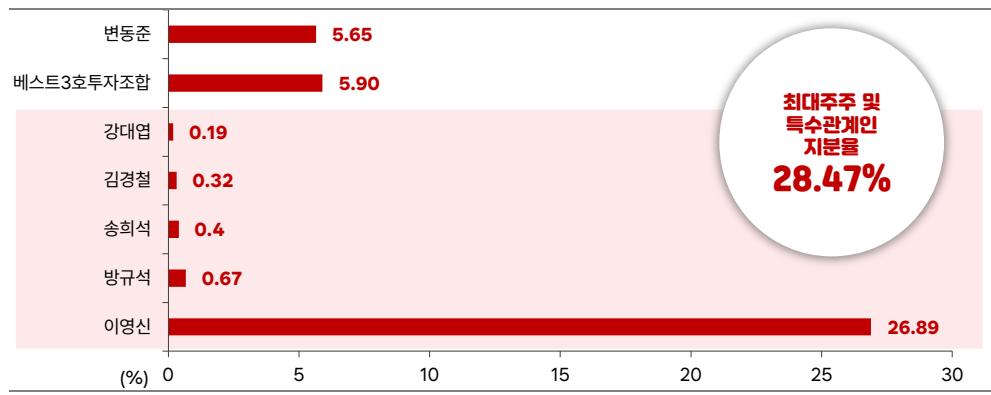
2. 주주 구성

2025년 6월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이영신 대표이사로, 보통주 3,386,280주(지분율 26.89%)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및 임원 지분을 포함할 경우 총 3,584,280주로 확대되며, 이는 전체 보통주의 28.47%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및 임원 지분에는 방규석 등기임원(0.67%), 송희석 등기임원(0.40%), 김경철 미등기임원(0.32%), 강대엽 미등기임원(0.19%) 등이 포함된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5% 이상 주요 주주는 최대주주인 이영신 대표이사(26.89%) 외에 베스트3호투자조합(5.90%)과 변동준(5.65%)이 있다.

주주구성 (2025.06.30 기준)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1 환자모니터링 솔루션 산업 현황**

-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시장은
-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
- 인력난에 따른 병동 모니터링
- 수요 확산, 보험 수가 및 정책
- 지원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며 본격 성장
- 사이클에 진입

글로벌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병원 운영 효율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솔루션은 스마트병원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스마트병원 시장은 2024년 약 582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54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성장의 중심에는 원격환자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oring, RPM) 기술이 있다. 또한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RPM 시장은 2024년 약 220억 달러에서 2033년 1,107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19.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에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중환자실(ICU, Intensive Care Unit)에 국한되어 구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일반병동, 수술 전후 회복병동, 요양병원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입원 환자군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의료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병원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2023~2024년 의정 갈등으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공백 사태를 경험한 병원들은 병상 관리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웨어러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서둘렀고, 이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사업을 통해 일반병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시장 도입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Philips(네덜란드), Nihon Kohden(일본), GE Healthcare(미국), Medtronic(미국) 등 전통 의료기기 강자들이 병원용 모니터링 장비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제품은 초기 구축비용이 높고 병원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에 한계가 있어, 현지 의료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AI,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데이터를 강점으로 하는 IT기업과 신흥 의료기기 업체들이 틈새시장을 파고들고 있으며, 글로벌 헬스케어+IT 융합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국내 전체 병상 수가 약 70만 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 이러한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이 적용된 병상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단순히 E6544(심전도 침상감시)와 E7230(혈액산소포화도 측정) 등 대표적 수가 항목만을 기준으로, 수가 단가 × 70만 병상 × 365일로 계산해 보아도 국내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장의 잠재 규모는 약 7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원격 심전도 감시, 산소포화도 측정 등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항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병원 입장에서는 솔루션 도입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보급 확산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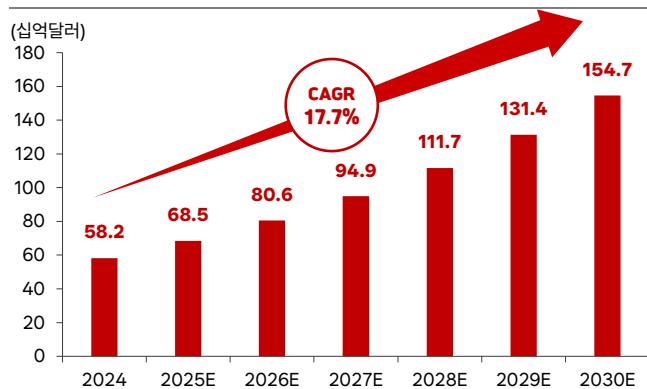
과거 국내 병원은 대부분 외산 장비(Philips의 'Telemetry')에 의존해왔으나, 비용 부담과 맞춤형 지원 부족으로 도입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국산 솔루션이 부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씨어스테크놀로지의 'thynC'가 있다. 해당 제품은 무선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심박수, 호흡수,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연속 측정하고, 병원 EMR과 연동되는

높은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초기 구축비용을 낮추고 병원 규모별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여 대형병원뿐 아니라 중소형 병원, 요양병원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료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의료 확대에 힘입어 원격 모니터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AI를 활용한 이상장후 예측 및 진단 기능이 더해지며 기술적 부가가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인프라의 디지털화, 정책적 지원이라는 구조적 성장 동력이 뚜렷하게 작동하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정부의 스마트병원 정책 지원과 보험 수가 체계 정비로 사업화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대형 제약사와 IT 기업까지 진입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인력난 대응이라는 현실적 요인과 맞물리며 일반병동 모니터링 시장이 빠르게 개척되고 있는데, 아직 절대다수 병상이 공백 상태라는 점에서 블루오션 성격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국산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더해지며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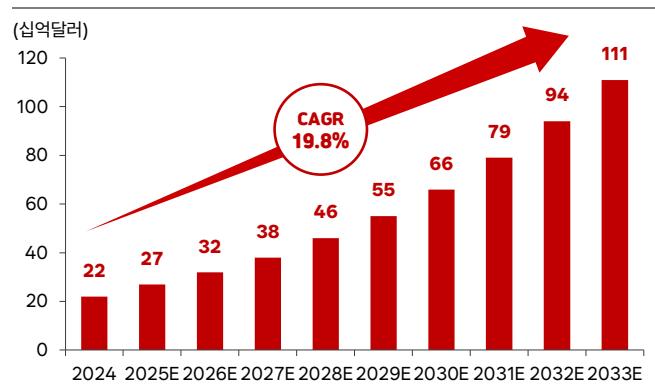
향후 몇 년간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중소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의료까지 확대되어 전주기 환자 모니터링 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은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관련 시장 규모도 당분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스마트 병원 시장 규모



자료: Precedence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원격환자모니터링 시장 규모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심전도 검사 솔루션 산업 현황

웨어러블 심전도 및 환자 모니터링

시장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와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및

국내 모두 고성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보험

수가 제도 정비와 'mobiCARE'

같은 국산 솔루션 확산으로 빠르게

제도권 내에 안착 중

웨어러블 의료기기는 편의성과 데이터 융합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자가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 확대가 글로벌 수요를 견인하고 있으며, 스마트워치, 패치형 센서 등 다양한 기기가 심전도 ECG(ElectroCardioGram),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개인 맞춤 건강관리와 조기 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애플, 구글, 삼성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까지 시장에 뛰어들며 생태계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심전도 기반 진단지원 솔루션, 즉 홀터 모니터와 패치형 심전계 시장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핵심 분야다. 심장 부정맥 조기 진단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불편했던 리드선 기반 홀터 검사를 대체할 경량 패치형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는 패치형 심전도가 장시간 심전도 검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표준으로 자리잡았고, 글로벌 시장 규모 역시 2024년 약 16억 9천만 달러에서 2030년 48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19.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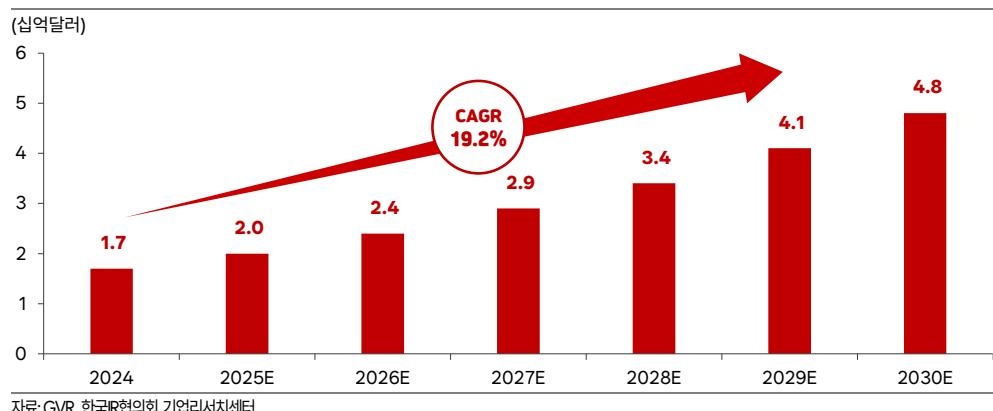
경쟁 구도를 보면, iRhythm(미국)의 'Zio Patch'가 최대 14일 연속 착용 가능성과 AI 기반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한 통합 솔루션을 앞세워 선두주자로 자리잡았다. Philips(네덜란드)는 BioTelemetry 인수를 통해 원격 심장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결합했으나, 패치형 기기 자체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Boston Scientific(미국)은 Preventice 인수를 통해 'BodyGuardian'이라는 웨어러블 ECG와 클라우드 기반 모니터링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liveCor(미국)는 스마트폰 연동형 KardiaMobile을 기반으로 DTC(Direct-to-Consumer) 시장을 공략하지만 장시간 모니터링에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대형사들은 서비스 네트워크와 원격 모니터링 통합에서 차별화를 추구하는 한편, 제품 단가와 장시간 연속 모니터링 역량이 경쟁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AT센스(AT-Patch), 휴이노(메모패치), 스카이랩스(CART-I), 메쥬(하이카디), 웰리시스(에스패치 카디오) 등이 기술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휴이노는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반의 원격 모니터링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스카이랩스는 반지형 기기를 통해 장시간 착용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메쥬는 해외 인허가를 확보하며 글로벌 진출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병원 내 실사용 레퍼런스는 제한적이고, AT센스는 국내 최초로 유럽 CE 인증을 획득하며 해외 진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현재 국내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업체는 씨어스테크놀로지의 'mobiCARE'다. 'mobiCARE'는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89% 이상 도입되어 사실상 국내 표준 솔루션으로 자리잡았으며, 검사 건수도 2020년 1,700건에서 2025년 20만건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임상 신뢰도와 보험 수가 연계, 병원 친화적 판독 솔루션, 그리고 향후 생체신호 모니터링 확장성까지 확보한 점에서 경쟁 우위가 뚜렷하다.

국내의 심전도 검사 솔루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장시간 홀터 심전도 보험수가(E6556, E6557)를 신설하면서 병원 내 사용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3년에는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평가에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가 포함되며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산 패치형 솔루션이 제도권 내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으며, 일반병동 및 1차 의료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

종합적으로, 웨어러블 심전도 및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시장은 글로벌 차원에서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디지털 헬스 케어 확산이라는 구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 지원과 보험수가 체계 정비, 의료 인력난 대응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맞물리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심전도 및 환자 모니터링&진단지원 솔루션은 환자 안전과 조기 진단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및 국내 모두에서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산업으로 평가된다.

Global ECG Patch Holter Monitor 시장 규모



심전도 의료기기 글로벌 제품 출시 현황

기업명	iRhythm	Philips	Boston Scientific	AliveCor
제품사진				
제품명	Zio Patch	ePatch	BodyGuardian	Kardiamobile

자료: 각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심전도 의료기기 국내 시장 진출 현황

기업명	씨어스테크놀로지	휴이노	웰리시스	스카이랩스	메쥬	에이티센스
제품사진						
제품명	모비케어	메모패치	에스패치 카디오	카트원플러스	하이카디	에이티패치

자료: 각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 병동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핵심, The 'thynC'

**'thynC'는 다중 바이탈 통합과
구독형 매출 구조를 기반으로
임상적 유용성, 보험 수가 연계
안정성, 대응제약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확산력을 확보하며,
2025년 핵심 성장 동력으로
기업가치 재평가를 견인할 플랫폼**

'thynC'는 기존 단일 파라미터 기반 웨어러블 기업들과 달리, '다중 바이탈 통합 & 병동 운영 소프트웨어'라는 플랫폼적 성격을 갖춘 점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국내 경쟁사 주력 제품들이 ECG 단일 신호(싱글-리드 패치)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thynC'는 ECG, SpO₂, 체온, 호흡수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동시 수집 및 정제하고, 이를 EMR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병동 단위의 중앙 관제, 알람 관리, 업무 프로세스까지 포함한다. 특히 자체 Hand-Over 제어를 통해 측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알고리즘 기반 알람 및 에스컬레이션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상태 변화의 조기 포착과 대응 지연 축소라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완성도는 환자 안전성 및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간호 인력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활력징후 기록 업무를 중앙 대시보드와 모바일 자동화로 대체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와 인력당 병상 커버리지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매출 구조 측면에서도 명확한 성장 스토리가 확인된다. 'thynC'는 수주→설치→구독으로 이어지는 2단계 수익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2025년 약 1만 병상 수주가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약 3천 병상 설치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잔여 7천 병상 설치와 신규 구독 개시가 집중되면서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설치가 완료된 병상은 이후 소프트웨어 및 유지보수 기반의 반복 구독 매출로 전환되며, 글로벌사 권장사항에 의하면 약 5년 주기로 교체가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권장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연간 매출 잔고(run-rate)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확대는 총이익률 개선과 운영 레버리지 효과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thynC'는 건강보험 수가 EX871(원격 심박기술 감시), E6544(심전도 침상감시), E7230(경피적 혈액 산소포화도 측정), E6548(24시간 혈압 측정검사)를 인정받아 병원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동사에는 병원 도입에 따른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험 수가 연계 구조는 병원 도입 시 투자 대비 효과 ROI(Return On Investment)를 크게 높여 경쟁사 대비 확실한 차별화를 확보하게 하고, 시장 확산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 파트너십 역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응제약과의 독점 유통 계약을 통해 전국 병원 네트워크와 의료진 커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빠른 레퍼런스 확보와 동일 그룹 및 권역 내 다병원 확산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설치 이후 자연스러운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2025년 하반기부터 누적 병상 수의 비선형적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구조적 강점에 힘입어 'thynC'의 2025년 상반기 매출은 약 9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도 전체 매출(약 42억 원)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하반기에는 대규모 설치 물량이 집중되면서 매출 성장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thynC' 단일 플랫폼 매출만으로도 약 260억 원에 달하는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동사의 손익 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상승을 견인할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thynC'는 임상적 정확성, 의료진 업무 효율화, 반복 구독 기반의 수익성, 대형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침투력, 플랫폼 확장성이라는 다중적 투자 포인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구조적 성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긍정적인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mobiCARE & thynC 비즈니스 모델

mobiCARE™

thynC™

외래 심전도 분석서비스

요양급여 수가 기반 구독서비스



- 스탠다드 모델
(AI 분석 보고서)

- 프리미엄 모델
(AI 분석 및 전문의 감수 보고서)

E6545 (48시간 이내 홀터기록 검사, 58,777₩)
E6556 (7일 이내 홀터 기록 검사, 156,665₩)
E6557 (14일 이내 홀터기록검사, 214,038₩)

부정맥 스크리닝 서비스(건강검진 기관)

비급여 구독서비스



- 당일검진 모델
(AI 분석 보고서)
- 프리미엄 모델
(AI 분석 및 전문의 감수 보고서)
- 당일검진 모델은 현장방문 수검기간 측정을 통한 AI 선별검사
- AI 선별검사 후 유증상자 대상 프리미엄 3일 진단검사 연계
- 프리미엄 모델은 1일/2일/3일/7일 검사시간별 상품으로 구성

요양급여 수가 기반 구독서비스

AI분석 모니터링 보고서 구독



병상 규모별 시스템 판매서비스

- 10/20/30/40 병상 규모별 시스템 판매 모델
- 스마트 병동 운영을 위한 병원 내 전 병동 구축 모델
+ 유지보수 서비스 및 웨어러블 바이오센서 소모품 판매



병원(입원)
환자

E8X71 (원격심박기술에의한감시, 1일당 44,287₩)

E6544 (심전도 침상감시, 1일당 18,803₩)

E7230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측정, 1일당 9,971₩)

E6548 (24시간혈압측정검사, 17,262₩)

* 입원환자 대상 mobiCARE E6556/E6557 추가 제공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② 국내 심전도 모니터링 표준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mobiCARE의 도약

'mobiCARE'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89%에 도입되며
사실상 표준 심전도 솔루션으로
자리잡았고, 해외 진출 모멘텀을
동시에 확보해 동사의 Cash
Cow이자 장기 성장 플랫폼

씨어스테크놀로지의 'mobiCARE'는 이미 국내 심전도 검사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한 제품군으로, 상급종합 병원의 89%에서 도입되어 사실상 표준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5년 상반기 기준 부정맥 진단 20만 건, 스크리닝 30만건에 달하는 검사 건수는 단순한 판매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임상적 신뢰성 확보, 의료진의 실제 활용 경험 축적, 환자 친화적 사용성 입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위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확연한 우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순 ECG 패치 판매가 아닌 데이터 저장, AI 판독, 전문의 판독 서비스까지 포함된 토탈 심전도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높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mobiCARE'는 경쟁 제품 대비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경쟁사가 제공하는 패치는 심전도 데이터 전송 중심에 가깝지만, 'mobiCARE'는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는 내장형 저장 기술과 장시간 쟝용이 가능한 전극 구조를 제공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자체 개발한 AI 기반 부정맥 판독 알고리즘과 전문의 판독 패키지를 결합함으로써, 데이터 수집에서 임상 판독까지 이어지는 end-to-end 가치사슬을 완성했다. 이는 병원이 단순히 기기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운영 효율성 개선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mobiCARE'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 전망 측면에서, 국내 보험 수가 체계(E6556[7일 이내 홀터 기록 검사], E6557[14일 이내 홀터 기록 검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는 경쟁사들이 단기간 내 따라오기 어려운 제도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

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ECG 패치 시장은 연평균 15~20%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mobiCARE'는 국내에서 이미 입증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할 경우, 글로벌 확장 모멘텀 확보에도 도전할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승인을 기점으로 26Q1부터는 미국 현지 협력사와 Joint Venture 설립을 통해 1차 의료 기관 및 대형 병원 체인으로의 시장 침투가 시작될 예정이며, 2024년에 진출한 홍콩, 베트남,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어 2025년에는 미국, 중동,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되어 다수 국가에서 해외 진출이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mobiCARE'는 동사의 Cash Cow 역할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심 전도 모니터링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이중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thynC'와 더불어 "안정적 현금창출 +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투자 스토리를 강화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하며, 장기적 벤처에이션 업사이드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mobiCARE 침투 가능한 블루오션 시장에 따른 업사이드 포텐셜 (2025년 6월 말 기준)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시장 진출 사업 현황

구분	몽골	홍콩	카자흐스탄	베트남	인도	UAE	USA
현지파트너	Novitas	BTL	Open Healthcare	MITA Medtech	Life Sign	One Health	CBS
인허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진행 중
실증의료기관	National CV Center	Queen Mary Hospital	Almati Heart Center	BachMai Hospital	Apollo	SSMC	S't Luke Hospital
진행 상황	mobiCARE 분석센터	원격 심전도 분석 서비스	mobiCARE 분석센터	mobiCARE 분석센터	mobiCARE 분석센터, thynC 시스템 판매	mobiCARE 분석센터	mobiCARE 분석센터
상용화 시점	2023년 3Q	2024년 1Q	2024년 3Q	2025년 1Q	2025년 4Q 예정	2025년 3Q 예정	2026년 1Q 예정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4년 실적 리뷰

2024년 매출 81억 원(+330%

YoY)으로 외형 성장을 달성하며

매출총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 및 순손실이 지속되어 손익

구조 개선의 초기 단계에 머문

전환기의 한 해

씨어스테크놀로지의 2024년 연결 기준 실적은 전년 대비 큰 폭의 외형 성장을 기록했으나, 영업적자 기조는 지속되었다. 매출액은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30%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주력 제품인 병원용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thyneC'의 수주 확대와 심전도 검사 솔루션 'mobiCARE' 매출 인식이 본격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2023년까지 매출총손실이 8억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2024년에는 34억 원의 매출총이익을 시현하며 손익 구조 개선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판관비 부담으로 인해 영업손실은 87억 원, 당기순손실은 89억 원을 기록하였다. 손익 측면에서는 적자가 이어졌으나, 매출 구조의 질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한 해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2024년은 실적 측면에서 전환점 마련의 기초가 다져진 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2 2025년 실적 전망

2025년 매출 313억 원,

영업이익 51억 원, 순이익 52억

원을 달성하며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thyneC' 병상 설치 확대와

'mobiCARE' 검사량 증가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가시화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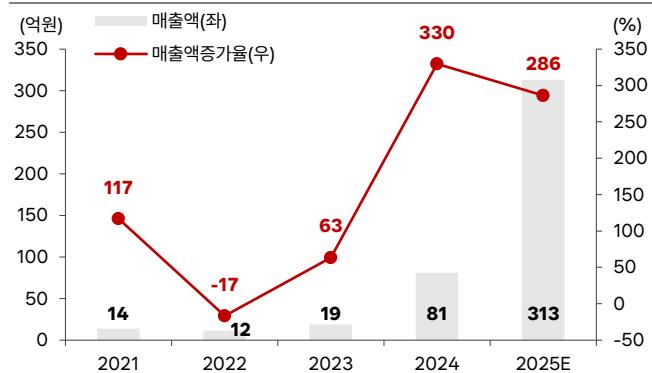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

2025년 씨어스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동사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 313억 원, 영업이익 51억 원, 당기순이익 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배에 가까운 매출 고성장과 함께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 달성이 기대된다. 이미 상반기에 매출 약 120억 원(+637% YoY), 영업이익 약 9억 원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만큼, 하반기에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hyneC' 신규 설치와 'mobiCARE'의 건강검진 수요 집중 효과가 하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매출은 약 213억 원, 영업이익은 42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thyneC'의 신규 병상 설치 확대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설치 병상은 약 3천 병상으로 연간 목표치(약 1만 병상)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잔여 병상 설치가 집중되면서 설치 매출이 대거 인식될 전망이다. 또 다른 성장 축인 'mobiCARE' 역시 검사량 확대에 따른 성장이 본격화된다. 동사는 KMI,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대형 검진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약 400만 명 규모의 신규 수검자 시장을 확보했으며, 작년부터 검진 패키지에 부정맥 스크리닝이 포함되면서 매출 가시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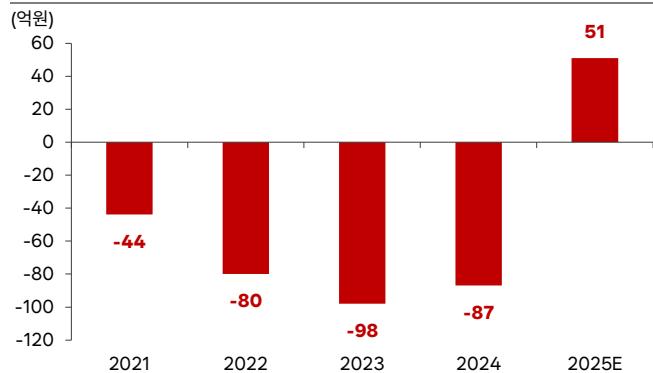
이와 같은 성장 동인에 힘입어 2025년 동사의 수익성은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까지 선행 투입된 R&D 및 인건비 부담은 매출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완화되며, 판관비 비중은 매출 대비 약 50%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4년 적자에서 2025년 약 16.3%로 흑자 전환되고, 순이익률도 16.8%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2025년은 동사가 외형 성장과 이익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전환점의 해로 평가된다.

매출액 추이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1.5	18.9	81.0	313.0
증가율 (%)	-16.8	63.5	329.7	286.4
mobiCARE	5.6	14.3	36.8	52.0
thynC	5.4	3.4	41.8	260.0
기타	0.5	1.2	2.4	1.0
매출원가	17	27	47	106
매출원가율 (%)	141.7	142.1	58.0	33.9
영업이익	-80	-98	-87	51
영업이익률 (%)	적지	적지	적지	16.3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세전계속사업이익	-80	-99	-88	52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흑전
당기순이익	-80	-99	-89	52
순이익률 (%)	적지	적지	흑전	16.8
증가율 (%)	적지	적지	흑전	흑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80	-99	-89	52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5년 PBR 18.0배, PSR 15.3배, ROE 21.8%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예상되며,
보험 수가 인정에 따른 안정적
매출 성장 구조와 글로벌 확장성,
고ROE 구조를 바탕으로
단기적 부담에도 장기적 재평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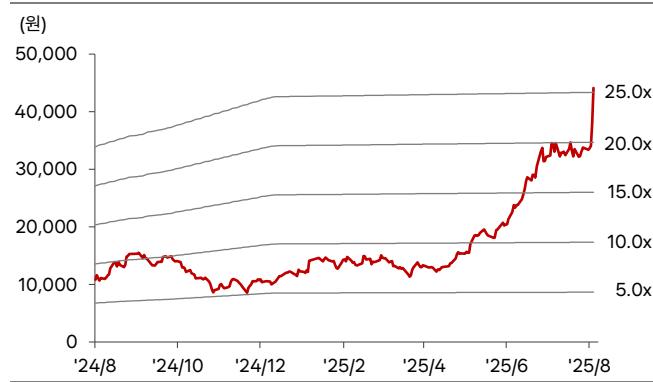
씨어스테크놀로지의 2025년 실적 전망치를 반영한 예상 밸류에이션 지표는 PBR 18.0배, PSR 15.3배, ROE 21.8% 수준이다. 순이익 52억 원을 달성하며 창사 이래 첫 흑자전환이 확실시됨에 따라 PER 산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상장 2년 차에 불과한 신생 기업임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PBR과 PSR 중심의 상대가치 평가가 보다 합리적이다.

동사는 2024년 상장을 기점으로 'thynC'와 'mobiCARE'라는 투트랙 성장 축을 확보하며 불과 1년 만에 흑자 구조를 달성했다. 'thynC'는 일반병동 모니터링이라는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하며 빠르게 매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mobiCARE'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89% 도입 및 검진센터 확산을 통해 사실상 표준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른 2025년 예상 멀티플(PBR 18.0배, PSR 15.3배)은 단순 수치상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사는 국내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수익화를 달성하고 있으며, ROE가 20%를 상회하는 높은 자본 효율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은 정당화된다. 특히 경쟁사와 달리 건강보험 수가 인정을 받음으로써 병원은 도입 시 투자 대비 ROI를 크게 높일 수 있고, 동사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하는 차별적 위치를 갖추고 있다.

상장 이후 평균 PBR은 약 13배 수준에서 형성되었으며, 역사적 밴드는 PBR 5.0x~21.0x, PSR 14.2x~52.4x 구간에 분포한다. 이를 감안할 때, 2025년 예상 PBR은 상단부, PSR은 중하단부에 위치해 있다. 이는 상장 초기 프리미엄이 일부 조정된 이후, 국내외 시장에서의 빠른 점유율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병상 설치 가속화와 해외 진출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의 상장사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병상 확산 속도와 실적 가시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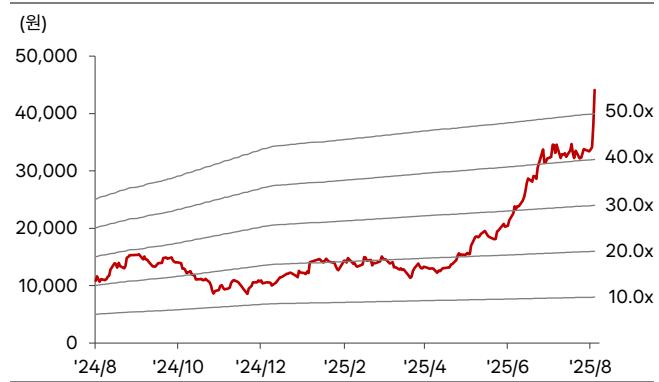
이에 따라, 현 시점의 밸류에이션은 단순 실적 대비 프리미엄이 아니라 보험 수가 기반의 안정적 매출 성장, 글로벌 시장 확장성, 고ROE 구조라는 세 가지 축을 반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향후 'thynC' 해외 수출, 'mobiCARE' 글로벌 상용화, 추가 보험 수가 확대 등이 가시화될 경우, 현재의 높은 멀티플은 오히려 장기적 재평가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씨어스테크놀로지 PB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씨어스테크놀로지 PS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보험 수가 의존도와 밸류에이션****변동성이라는 리스크 요인이****존재하나, 'thynC'와****'mobiCARE'를 축으로 한****구조적 성장성과 차별화된****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장기적****재평가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으로****평가**

최근 씨어스테크놀로지의 투자 매력 요인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투자자 관점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한다. 이는 동사의 중장기 성장성을 부정하기보다, 향후 사업 전개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보험 수가 의존도다. 동사는 건강보험 수가 연계 모델을 통해 빠르게 병원 채택률을 높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이는 동시에 국내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향후 수가 기준이나 정책이 변경될 경우 병원의 도입 인센티브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매출 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는 국내와 동일한 보험 수가 기반 모델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현지 제도와 환경에 맞는 신규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성장 지속성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밸류에이션 민감도 및 주가 변동성이다. 동사는 국내 AI 헬스케어 기업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흑자 구조에 진입하며 시장의 기대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며 고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했는데, 이는 성장 속도 둔화나 계획 지연 시 주가 조정 압력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FDA 승인 지연, 국내 매출화 속도 둔화, 등은 단기 투자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성장 기대치가 반영된 현 주가는 향후 변동성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여전히 견조하다. 동사는 일반 병동 모니터링 시장을 개척한 'thynC'와 국내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에 도입된 'mobiCARE'라는 차별적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승인에 기반한 안정적 매출 성장 구조, 대웅제약과의 영업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해외 진출 계획 등은 성장 스토리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이에 따라 구조적 성장성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재평가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으로 평가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4	12	19	81	313
증가율(%)	116.8	-16.8	63.5	329.7	286.4
매출원가	15	17	27	47	106
매출원가율(%)	107.1	141.7	142.1	58.0	33.9
매출총이익	-1	-6	-8	34	207
매출이익률(%)	-10.3	-47.8	-43.7	42.4	66.1
판매관리비	42	74	90	121	156
판관비율(%)	300.0	616.7	473.7	149.4	49.8
EBITDA	-41	-75	-88	-76	64
EBITDA 이익률(%)	-292.9	-648.7	-467.6	-93.3	20.5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영업이익	-44	-80	-98	-87	51
영업이익률(%)	-316.6	-693.0	-520.1	-107.2	16.3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영업외손익	-0	0	-1	-1	1
금융수익	0	1	1	3	4
금융비용	1	1	2	4	3
기타영업외손익	0	0	0	0	0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44	-80	-99	-88	52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흑전
법인세비용	0	0	0	1	-0
계속사업이익	-44	-80	-99	-89	5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44	-80	-99	-89	52
당기순이익률(%)	-319.6	-692.9	-526.1	-109.5	16.8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44	-80	-99	-89	52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225	119	59	164	246
현금성자산	213	103	41	108	94
단기투자자산	0	0	0	0	0
매출채권	3	7	5	42	109
재고자산	5	8	10	12	36
기타유동자산	4	1	2	2	7
비유동자산	10	94	113	116	111
유형자산	9	92	108	102	97
무형자산	0	1	0	0	0
투자자산	0	0	0	10	10
기타비유동자산	1	1	5	4	4
자산총계	236	213	171	281	357
유동부채	34	27	67	39	61
단기차입금	3	0	46	16	16
매입채무	1	0	2	2	40
기타유동부채	30	27	19	21	5
비유동부채	13	5	23	28	27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3	5	23	28	27
부채총계	48	33	90	67	88
지배주주지분	188	180	81	214	266
자본금	13	14	55	63	63
자본잉여금	354	423	382	600	600
자본조정 등	1	3	4	3	3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180	-260	-360	-452	-400
자본총계	188	180	81	214	266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3	-85	-79	-111	-8
당기순이익	-44	-80	-99	-89	52
유형자산 삼각비	3	5	10	11	13
무형자산 삼각비	0	0	0	0	0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4	-17	7	-38	-74
기타	2	7	3	5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	-88	-10	-14	-6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0	-10	0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5	-88	-7	-4	-6
기타	1	0	-3	0	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65	63	27	192	0
차입금의 증가(감소)	-18	-7	27	-33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183	70	0	217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0	0	0	8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감소)	118	-110	-62	67	-14
기초현금	95	213	103	41	108
기말현금	213	103	41	108	94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N/A	N/A	N/A	N/A	91.2
P/B(배)	0.0	0.0	0.0	6.2	18.0
P/S(배)	0.0	0.0	0.0	15.3	15.3
EV/EBITDA(배)	N/A	N/A	N/A	N/A	73.6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EPS(원)	-476	-741	-905	-752	417
BPS(원)	1,794	1,644	740	1,705	2,116
SPS(원)	149	107	172	687	2,487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37.6	-43.4	-75.9	-60.1	21.8
ROA	-25.9	-35.6	-51.6	-39.2	16.4
ROIC	-1,088.7	-149.1	-95.2	-70.9	29.4
안정성(%)					
유동비율	657.8	433.1	87.2	423.8	400.7
부채비율	25.3	18.2	111.5	31.2	33.2
순차입금비율	-100.9	-47.8	26.5	-36.2	-23.8
이자보상배율	-33.3	-85.6	-46.6	-22.2	20.0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1	0.1	0.1	0.4	1.0
매출채권회전율	8.6	2.2	3.0	3.4	4.1
재고자산회전율	4.0	1.8	2.1	7.2	13.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씨어스테크놀로지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08.27	thynC와 mobiCARE, 투트랙 질주로 고성장 궤도 진입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